

라일세. 그러나 이런 양극단이 또한 인간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. 인간의 행복이란 중용과 덕성에 있으니 말이야.

폴

아저씨가 말하는 덕성은 무슨 의미인가요?

노인

우리 아드님! 본인 노력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네에게는 그 말의 뜻을 짚어줄 필요도 없네. 덕성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겠다는 목적 속에서 타인의 이로움을 위해 스스로 행하는 노력이지.

폴

아! 그렇다면 비르지니는 덕성을 갖춘 여인이로군요! 부자가 되려 했던 것도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함이니, 바로 그 덕성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. 바로 그 덕성을 따라 그녀는 이 섬을 떠났던 거예요. 그러니 덕성이 그녀를 이곳에 다시 데려다줄 겁니다.

그녀가 곧 돌아오리라는 생각이 이 짧은이의 상상력에 불을 붙이자, 그의 모든 걱정은 사그라들었다네. 비르지니는 곧 도착할 것이기에 지금까지 편지를 한 통도 쓰지 않았던 거다. 순풍만 잘 만난다면 유럽에서 오는 데 그리 오래